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문선원의 대행스님께 어루어 응답해 드립니다. 상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법공양 페이지

# 일체 생명과 내 생명은 본래 하나

### 벌레 죽었는데 살생죄 받나요

**문** 인터넷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지 한달도 못되는 햇병아리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듣고 또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 새로워서 자꾸만 듣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글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스님! 본래 자성(自性)이 부처임을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돌 아닌 도리를 깨우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이에게 섬세치 않게 대하고, 성내면서 말하지 않고 웃으면서 말하고 함이 없이 나뉘는다는 실천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컴퓨터에서 불어로기를 하여 덮어쓰기를 했을 때 이전 내용이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이 입력되니 나온 곳에 도로 놓으라는 충격적인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왕초보인 저의 귀에도 잘 들리도록 쉽게 법문을 주셔서 더욱 더 고맙습니다.

스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미, 파리, 모기, 바퀴벌레 등등의 벌레를 예전에는 휴지로 싸서 죽이기도 하고 손으로 눌러 죽이기도 하고 악을 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무게가 같은 것을 안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 불법은 참으로 묘법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죄업과 인과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새나 벌레 따위를 죽이게 됐다고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을 근본으로 돌려서 그 생명과 내가 곧 바로 하나가 된다면 죽은 생명은 참마에 제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른 잘 믿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악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한생각만 잘 내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해서, 윤리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누이 강조하거니와 문제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간절한 믿음입니다. 눈앞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하나라는 원리를 뼈저리게 믿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생명을 주인공 자리에 되돌려 맞았을 때 살생은 이미 살생이 아닌 것이요, 오히려 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죄라는 것은 그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본래는 공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업보가 있기 마련인 것이 유태법(有爲法)입니다.

자기가 한 행위로부터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며,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답을, 악한 행위에는 악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태법을 떠나서 무한광대한 불법의 진수에 들게 될 때엔 이미 그런 인과응보 따위는 훨훨 벗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 심은 데서 공 나고 팔 심은 데서 팔이 난다'는 속담도 이미 맞지 않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는 공 심은 데서 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공 심은 데서 팔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불가사의한 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생심을 벗어나지 못하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중생심으로는 공 심은 데서 팔이 난다는 이야기가 이해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에 어긋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불법이 무한광대하고도 미묘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살생을 해서는 안되지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으로 근본에 닿았으면 오히려 그 생명이 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또 작은 것 하나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나와 같이 생각하니 그런 대장부가 되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 따돌림 받는 아이들 있는데...

**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입니다. 여학생입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얼굴 생김새가 이상하고 아이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아이들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런 아이들을 싫어하고 따돌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없앨 수 있을까요? 주인공이 아닌 내가 그 아이를 거부하는 것일까요? 많은 아이들은 그런 아이를 보지만 해도 싫어하고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그런 아이들이 좋아서 관심을 갖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큰스님,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답** 보면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다. 그러나 그것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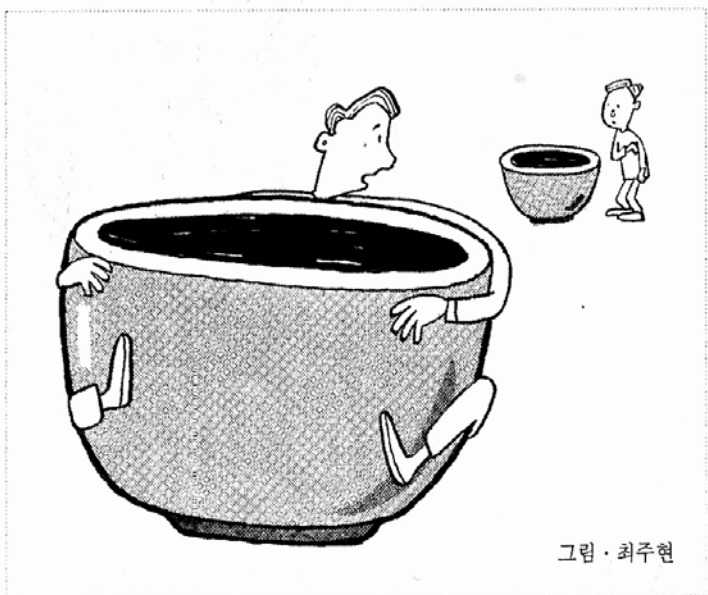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 세상에 내 형제·부모·자식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 나와 둘로 보지 말고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대해야죠

서지... 왜 줄 아니? 그 사람들이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그래. 또 둘이 아닌 까  
닭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이 세상에 모두가 내 형제 아님이 어디  
있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  
식 아님이 어디 있고 또 내 친구 아님이  
어디 있겠나?

우리 몸은 이 세상이 한철 소풍 왔기  
때문에 때가 되면 또 저 집에 가서 한철,  
자식이 됐다 형제가 됐다 부모가 됐  
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부모만 나  
만의 부모, 나만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  
겠나? 그래서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본  
다면 남의 부모, 내 부모, 또 친한 친구,  
친하지 않은 친구하고 가릴 필요가 없다  
는 얘기가,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모두 내 아님이 없으니까.

불쌍한 줄 알고 눈물을 흘려줄 수 있  
는 마음이 있기에 사람이라고 하고, 부처  
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그  
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  
와 둘로 보지 말고 너의 가족과 형제처  
럼 생각하고 따뜻한 말과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참, 좋을거야. 그리고 모두 함께  
하고 있는 주인공에 '너 만이 저 애들이  
따돌림받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깊이  
관해준다면 네 마음의 따뜻한 에너지가  
그 쪽으로 가서 그 애들을 도울 수가 있  
게 되는 거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  
두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렴.

### 불이(不二) 생활 실행 어려워...

**문** 부처님께서 "삼라만사 모든 생  
명과 내가 본래 둘이 아니고, 일체

제불과도 둘이 아닌 한마음"이라고 말씀  
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를 살아  
가는 저희들에게는 하루하루가 경쟁에서  
살아남느냐, 그렇지 않고 도태되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이 연속입니다. 그런 절박  
한 생활속에서 나와 남이 둘 아니고 하  
나이니 모든 것을 쟁취하지 말고 불이  
(不二)의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부처님  
의 말씀을 저희들이 실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도 따르며  
서 사회생활을 순탄하게 해 나갈 수 있  
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요  
일체제불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  
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과 우리들은 언  
제나 한몸이요, 한마음인데 어떻게 부처  
님께서 중생의 아픔을 따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중생들은 그런 근본까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나를 나누고 서로  
이(利)와 득(得)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분별  
은 적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중생들  
의 짐작과는 다르게 크나큰 평화를 줍니  
다. 우리들은 수억겁을 두고 오직 남을  
이기고 짓눌러야만 자기에게 이익이 있  
는 줄 아는, 그렇게 살아온 뿌리깊은 습  
(習)에 젖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  
별을 놓아라, 집착을 놓아라, 이익을 탐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 우선 몸부터 시립  
니다. 행여나 무엇을 빼앗길까, 행여나  
애써 얻은 것들을 놓치지 않을까 해서  
본능적으로 집착을 가지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  
입니다.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가르치셨  
고, 역대 선지식들께서 누누이 이르신 이  
무심법(無心法)과 놓아나가는 법은 결코  
수행자들의 이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  
다. 사정은 오히려 그와는 반대입니다.  
일체의 경계를 뛰어 수행자가 자기의 욕  
망을 차츰 조복받아 가다 보면 도리어  
내면에서 크나큰 안심과 대평화가 일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심과 평화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순수  
하고 깊은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 살지  
도 못할 것을 왜 가짜 짓을 하면서 삼니  
까? 돈 벌러나 괴롭고, 헛되지 않고 모  
야겠으리나 괴롭고 모야오면 좋은 대로  
아직 이것밖에 없다 싶으니 괴롭고...  
아이구, 이게 얼마나 가짜 놀음을 하고  
사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한테 주인

공에 모든 것을 놓고 맡기고 살아가, 거  
기밖에 해결할 수 없다. 거기밖에 감  
사한 데가 없다. 이러한 것은 '재산을 버  
려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기 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누가 돈을 다 버렸습니까? 올바른 쓰  
기가 벌기보다 더 어렵다는 그 사실만  
알면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있어도  
같이 가꾸지 않는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쓸데다 쓰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두 손을 펴고 오그릴 줄 모  
르면 정상이라고 할 수 없죠? 또 주먹을  
쥐었다가 풀 줄을 모르면 이것도 또 정  
상이 아닙니다. 폼다 쥐었다 폼다 쥐었다  
자유자재해야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상의 삶을 그대  
로,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줄 알아야 진  
짜 사람이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불자라고  
도 할 수 있겠지요.

### 지금 이대로가 깨달음인지요

**문** 한번도 직접 밭지는 못했지만 제  
가 어려울 때 스님께서는 제게 매일  
로써 큰 위로를 주신 것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더 없는 위로였습니  
다.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떻게 그런 매일  
이 제게 왔는지 저는 신비스럽게만 느낌  
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깨달음은  
단지 지금 이대로인 것인가요? 단지 그  
것뿐인가요? 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지금  
이대로의 삶뿐인가요? 수행은 필요 없는  
걸까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  
다. 각자 각자 자신의 마음 안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각자가 해야 할 몫입니  
다. 깨달음은 부처님이라 깨달아 대신  
해 주지 못합니다. 꽃씨를 심으면 꽃이  
피어나는 것은 꽃씨 속에 피어날 수 있  
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가  
알맞게 오고, 햇빛이 고르게 비추어도 씨  
앗이 자라 오르려고 하지 않는 데는 어  
필 도리가 없습니다.

만반의 근원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  
런데 마음이 체가 없어서 붙잡을 수도  
없고 빚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히 믿  
고 놓는 작업을 할 때, 그리고 구하고 물  
러서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  
닌 자기를 만나는 소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생각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  
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려면 자기가 죽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공부하는 데에는 무조건 들  
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  
음의 주인공을 믿어라!' 믿고 일체의 모  
든 것을, 즉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맞  
다 틀리다 하고 일어나는 모든 분별 망  
상을 몰록 주인공에 맡겨 놓아라! 용공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침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제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 꿈과 희망이 샘솟는 어린이불교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 29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한 김천 직지사서 개최합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여흥불교학교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어린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는 부처님 사상 교육의 바탕 위에 놀이를 통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됩니다.  
또한 여흥불교학교에 이은 어린이법회 운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제시 및 체험활동을 구성하여 창의적인 어린이법회 교육에 관련된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 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공모 및 시상식을 '놀이를 통한 부처님 말씀을 전담하는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직접 시연을 통하여 지도자들이 함께 배우고, 느끼며 다채로운 어린이 법회, 발전적인 법회 형식을 느낄 수 있는 연수회를 준비하오니 미래 불교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여러분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기 2544년 4월 좋은 날

총재/법관/부총재/혜총, 철오 회장/역진 상임부회장/정대 부회장/문성, 권혜, 영조, 해관, 심산, 성형, 인성 감사/지광, 박창석

**연수회 안내**

- 연 제 : 불기 2544년(2000년) 6월 3일(토) 오후 5시~4일(일) 오후 1시
- 어 디 서 : 김천 직지사 민덕전
- 참가대상 : 어린이지도자 및 교사, 어린이포교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
- 동 참 금 : 3만 8천원 (1박 3식, 기념품, 연수회 자료집, 여흥불교학교교재, 포스터 등 /미리 접수시: 3만 5천원/ 군종병, 도서벽지지도자 2만원)
- 신청방법 :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접수도 가능
- 보내실 곳 : 우체국 601310-0037877 / 예금주 : 대불어
- 신청기간 : 5월 1일(월)~5월 31일(수)
- 준 비 물 : 세면도구, 필기구
- 접수·문의 : 본회 사무국 ☎ (051)808-4569,4570 (FAX : 808-4571) PC천리만 : GO BOSAL (운영자 수신 편지 이용) E-Mail : Youngoc@thrunet.com/ZSBOSAL1@chollian.net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 주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강의일정**

강 의	주요 연수내용	강 사	비 고	
강의 1	노래로 여는 여흥불교학교	정유익	풍경소리	
강의 2	여흥불교학교의 계획과 운영 - 놀이를 통한 여흥불교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계획 - 운영의 실제	김미옥	육려유치원 원장	
강의 3	명상과 선 수련 - 어린이법회 지도법	정여스님	본회 상임부총장	
강의 4	부처님 말씀을 통한 어린이법회 키우기	청안스님	직지사 부주지	
부 처 님 이 로 세 여 는 강 의	5	도구를 이용한 아와놀이세상	박철수	도래이벤트 대표
	6	진래놀이의 운영과 실제	이상호	진래놀이 연구회
	7	놀이감을 이용한 놀이세상 - 매직풍선	박창주	법어사상연구소 대표/기안영원 회원
8	어린이법회의 의의와 실제	덕진스님	본회 회장	
강의 9	여흥불교학교에 입하는 지도자들의 자세	본각스님	법교총장 - 자비의 진화 진행	

**제2회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경진대회 공모안내**

우수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발굴과 보급 - 프로그램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21세기 어린이법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어린이법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주 최 : 사단법인 불국토
-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협회
- 참가대상 : 전국 어린이회, 어린이지도자 및 단체
- 공모기한 : 2000년 5월 15일까지 접수
- 공모내용 : '놀이'를 이용한 어린이법회 프로그램 - 현 어린이법회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창작프로그램, 미래지향적이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 경진대회 시연 및 시상식 : 연수회 당일 (상당심 심금 3백만원 수여)
- 기타 참가 안내 : 본회 사무국 동선 5월호/각 사찰 어린이법회 공문